

申采浩의 近代民族文學

朴熙秉*

1

丹齋 申采浩¹⁾에 대해서는 역사학과 사상사 방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²⁾ 그 쪽의 열기만큼은 못하지만, 문학 방면에서도 약간의 논문들이 나와 있다.³⁾ 그러나 專著로는 延邊大學 金柄珉 교수의 《신채호문학연구》⁴⁾가 고작인

* 본과 교수

- 1) 이 글은 1996년 12월 4일,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에서 <신채호와 한국민족주의>라는 주제로 주최한 단재신채호선생 순국60주년 기념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당시 분야별로 다섯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참고로 필자 외의 발표자와 그 논제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신일철, <신채호의 민족주의적 세계관과 그 극복>; 신용하, <단재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상의 성격>; 강만길, <신채호의 민족운동노선>; 이만열,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학>.
- 2) 사상사 방면에서는 신일철·신용하 교수가, 역사학 방면에서는 홍이섭·이만열·최홍규 교수 등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신채호 연구의 수준과 성과는 강만길 교수가 엮은 《신채호》(고려대학교 출판부, 1990)라는 책을 통해 개관할 수 있다.
- 3) 대표적인 논문을 몇 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데서 알 수 있듯, 문학가로서의 신채호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편이며, 그 비중에 상응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신채호 문학의 기본 성격은 宋載郁 교수가 잘 해명한 것으로 여겨지며,⁵⁾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연구는 김병민 교수의 저술이 주목된다. 필자는 이들 선행 연구를 참조하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신채호의 근대민족문학이 갖는 의의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초기의 애국계몽사상에서부터 만년의 아나키즘에 이르기까지 단재 사상의 일관된 기초를 이루는 것은 민족주의이다. 그가 남긴 문학적 텍스트가 이 점을 여하히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再論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단재가 문학을 통해 표출한 민족주의 정신이 얼마나 준렬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언급되었다고 보아 되도록 말을 아끼고자 한다.

이 글에서 필자가 주력해 살피고자 하는 것은 단재의 근대민족문학에서 전통적 요소가 어떤 작용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이다. 단재의 문학에 있어 전통적 요소는 修辭를 비롯한 作文法, 문학형식, 형상화 수법, 창작방법 등에 두루 걸쳐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검토는 여태껏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재가 이룩한 근대민족문학의 성격 및 의의를 거시적인 문학사적 시각에서 평가하고자 할 때 꼭

김윤식, <丹齋小說 및 문학사상의 문제점>, 《서울대 교양학부 논문집》 5집(1973).

_____, <단재의 문학관에 대하여>, 《단재기념논집》(1980).

송재소, <민중문학과 노예문학>, 《창작과비평》, 1980 봄號.

_____, <신채호 문학의 민족과 민중>, 《신채호》(고려대출판부, 1990).

이선영, <단재의 사상과 문학>, 《신채호》(고려대출판부, 1990).

4) '아침'이라는 출판사에서 1989년 간행되었다.

5) 주 3)의 논문 참조.

있어야 할 작업이 아닌가 한다.

3

주지하다시피 단재는 적지 않은 분량의 政論과 雜感⁶⁾을 남겼다. 이런 글들은 모두 時宜에 따라 집필되었는데, 단재의 熱血精神과 드높은 氣魄을 약여히 보여준다.

우리나라 고전문학, 특히 漢文學에는 '議論散文'이라 하여 자신의 主義나 主張을 간명하면서도 감동적으로 전개하는 양식이 있어 왔다. 議, 論, 說, 策, 疏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所懷나 사상을 개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가 있었다. 問對,⁷⁾ 記, 序, 辨, 漫錄 등이 그것이며, 조선후기에 와서는 이들 양식이 이른바 小品文으로 전개되기도 하면서 그 소재와 영역을 확대하고, 抒情과 敘事와 議論을 비교적 자유롭게 배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일례로 우리는 18세기가 낳은 문호 燕巖 朴趾源(1737~1805)에게서 그 점을 잘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단재의 정론과 잡감이 19세기까지 발전해온 이런 전통적 글쓰기의 원리와 방법을 아주 잘 활용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어 개의 예를 들어본다.

6) '雜感'이라는 용어는 중국 근대문학이 낳은 용어다. 주지하다시피 魯迅은 이 잡감이라는 글쓰기 양식을 확립했으며 그 가능성을 한껏 구현한 작가다. 잡감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수필에 해당하겠는데, 우리의 근대수필이 대체로 전통적 글쓰기와는 무관한 자리에서 출발했음에 반해 잡감은 唐宋八家 이래 발전해온 전통적 산문의 기법과 미학적 원리를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근대적 문제의식과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통념되는 수필과는 다른 면이 있다. 단재의 유고 가운데 《단아잡감록》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단재는 이 잡감이라는 양식을 대단히 중시했다.

7) '問對'는 문답으로 일컫는 산문 장르이다. 이 장르는 중세 전 시기에 걸쳐 아주 성행했다. 일례를 들면 李奎報의 <問造物>, 李珣의 <東湖問答>, 洪大容의 <盤山問答> 같은 글이 그에 해당한다.

(1) 此國에 日本三大忠奴가 有함은 我가 不得不哭이며 我가 不得不哭이며 我가 不得不聲哭이며 我가 不得不椎胸撫心哭이며 我가 不得不呼天叫地哭이로다. —〈일본의 三大忠奴〉⁸⁾

(2) 아 처량한 바람 음울한 비에 삼천리 강산이 안색을 바꾸고 뜨거운 불 깊은 물에 2천만 동포가 슬픈 울음소리를 내는도다.

그런즉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이 능히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은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이 능히 부강의 기틀을 열어 국민의 위력있는 기백을 빛낼가.

대답하되 이것은 오직 국민동포가 20세기의 새 국민이 됨에 있는 것이다.

—〈20세기 新國民〉

(3) 오호라 어떻게 하면 우리 2천만의 귀에 항상 애국이란 말이 쟁쟁거리게 할가? 오로지 역사를 논해야 할지니라.

오호라 어떻게 하면 우리 2천만의 눈에 항상 애국이란 글발이 삼삼거리게 할 것인가? 오로지 역사를 말해야 할지니라.

오호라 어떻게 하면 우리 2천만의 손이 항상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할 것인가? 오로지 역사를 논해야 할 것이다.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

이 인용문들은 古文이나 小品文 등 古典散文의 글쓰기 방법을 계승하고 있다. (1)에서는 점층법이, (2)에서는 영탄과 문답법이, (3)에서는 문답과 반복법이 구사되고 있는데, 이런 글쓰기 방법이 漢文學에서 유래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단재의 글들은 열고 닫음, 抑揚과 頓挫 등 한문학에서 높은 수준으로 발달한 글쓰기의 다양한 수법을 잘 활용하고 있음을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재는 이런 수법을 잘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사상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한편, 독자의 가슴에 깊은 정서적 감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재의 정론과 잡감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강렬한 主情吐露와 명확한 논리전개가 결합된 경우가 많다.

8) 인용자 임의로 지금의 맞춤법으로 고쳤다. 이하 인용문은 다 마찬가지다.

들쭉, 열거, 대조, 풍자, 야유, 역사적 逸話의 원용이 두드러진다.⁹⁾ 이는 그의 글을 힘차고 강렬하며, 구체적이고 생동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셋째, 기백이 넘친다. 단재의 정론과 잡감은 우리 근대문학사에서 가장 기백 높은 글이다. 근대문학뿐만이 아니라 우리문학사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단재의 정론만큼 펄펄한 氣를 보여주는 글은 그리 흔치 않다.¹⁰⁾

중국의 魯迅 역시 寸鐵殺人の 雜感으로 유명하지만, 단재는 沈重하면서도 예리한 노신과 낭만적이고 분방한 郭沫若 두 사람의 면모를 두루 지녔지 않나 여겨진다.

단재의 정론과 잡감은 어째서 이런 특징을 갖게 되었을까? 우선 그의 투철한 민족주의적 사상과 감정에서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상과 감정을 잘 구현하기 위해 전통적 글쓰기의 원리를 창조적으로 轉用한 데에서도 일단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터이다.

4

단재가 傳記小說과 역사소설을 여러 편 창작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최도통전》의 제1장 緒論 중 “朝野에 史乘을 搜하며 閭巷에 口碑를 採하여 公의 心事를 寫出코자”¹¹⁾ 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단재의 전기소설은 광범한 문헌을 섭렵하고 口碑를 참조하여 창작된 것이었다. 더군다나 《을지문덕》 같은 작품은 본문의 여기저기에다 관련된 史料를 細注 형식으로 제시해 놓고 있

9) 단재의 잡감이 보여주는 문체적 특징에 대해서는 김병민, 앞의 책, 208면에서 자세히 거론하고 있다.

10) 고전 작가 가운데 氣가 剛高한 문장을 쓴 분을 꼽으려면 단연 重峯 趙憲(1544~1592), 南冥 曹植(1501~1572), 연암 박지원 같은 분을 꼽을 수 있을 터이다. 단재의 문장이 보여주는 기백은 이런 분들이 이룩한 글쓰기의 전통을 이으면서 그것을 근대적으로 전환한 것이라 할 만하다.

11) 《개정판 단재 신채호 전집(중)》(형설출판사, 1977), 422면. 이하 《전집》이라 부른다.

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창작방법 내지 서술방법은 전연 새로운 것은 아니며, 중세문학의 한 양식인 傳이나 實記 같은 데서 흔히 써온 방법이다. 한문학에서는 이런 글쓰기 양식을 총칭해 ‘歷史散文’이라고 부른다. 본시 한문학에 깊은 蘊蓄이 있었던 단재는 역사산문의 글쓰기 방법과 전통적인 역사기술법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전기소설을 창작한 것이다.

단재의 전기소설은 전통적인 글쓰기를 계승하고 활용한 면도 있지만, 과거의 역사산문을 혁신하고 있는 면도 있다. 우선 章回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통 속에서 이런 형식의 유래를 찾자면 章回體 演義小說을 지목할 수 있을 터이다. 뿐만 아니라 단재의 전기소설에는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허구적 요소가 적잖이 가미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한 인물의 일대기를 위주로 하면서도 시대 배경에 대한 서술이 일정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列傳體의 글쓰기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단재의 전기소설을 중세의 역사산문과 결정적으로 구별짓는 점은 무엇보다도 작품의 기저를 이루는 도저한 민족주의 정신일 터이다. 舊形式은 바로 이 민족주의 정신과 결합됨으로써 글쓰기의 근대적 전환 과정에서 일정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단재의 역사소설은 대부분 완전하지 못하며 게다가 구성상의 약점도 없지 않지만, 주목되는 점도 적지 않다. 가령 《柳花傳》은 해모수·동명왕 신화를 소재로 한 소설인데, 다음에서 보듯 국문 고전소설의 서술방법을 따르고 있다.

柳花는 長女니 年이 十九歲라, 月態花容이 더욱 뛰어나고 식견이 특이하여 심상한 규중처녀의 비할 바가 아니라. 그 母 趙氏가 처음 유화를 배일 때에 하늘 仙女의 一朵花를 받았고, 분만할 때에 꽃주던 신녀가 학을 타고 생황을 불며 공중으로 내려와 조부인의 産點을 보살피고 도로 하늘로 올라갔다 하니, 원래 유화는 凡骨이 아니라 장래 大貴할 징조를 뵈었으며 천성이 慧敏하고 婦德이 넓어 隣里에서 칭찬이 자자하더라.¹²⁾

비단 ‘하더라’ ‘가로되’ 등 文體에서만이 아니라 그 세계인식이나 結構法에서도 국문고전소설의 영향이 역력하다. 가령 仙官이 등장하여 유화의 前生을 告

12) 《전집》, 226면.

知하거나 前途를 예언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선관의 말에 의하면 유희는 본래 前世 仙娥였는데, 창업할 帝王을 낳기 위해 지상에 태어났다. 이후 유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天上의 조력자가 등장해 구해준다. 《유희전》은 궁궐 내부에서 전개되는 妻妾間의 갈등을 사건 전개의 한 모티프로 삼고 있는데, 이 역시 고전소설의 영향이다.

이처럼 《유희전》은 天上과 地上의 二元的 世界認識을 보여준다. 이 두 세계는 각기 다른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별한 계기에 의해 交通 가능하다.

《유희전》은 古代神話의 세계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한 작품인데, 古小說의 형식 속에 근대 민족주의의 정신을 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각성된 민족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근대적이지만, 중세문학의 형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근대적이지 않다. 하지만 이 작품은 舊文學의 토양 위에서 '주체적'으로 근대문학이 모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百歲老僧의 美人談>¹³⁾에 등장하는 여인 '예쁜이'는 대단히 매력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婢子의 신분이면서도 一國을 경영할 만한 경륜을 지녔으며 대장부를 능가하는 俠氣와 기개를 지녔다. 고려를 침략한 몽고병을 물리치는 방책을 묻는 자신의 상전(재상)에게 예쁜이가 제시한 방책은 박지원의 <허생전>에서 허생이 李滄大將에게 제시한 세 가지 北伐의 방책을 연상케 한다. 단재는 이 대목을 서술하면서 朴燕巖이 그려낸 '허생'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본다.

예쁜이 인물형상의 창조에 舊文學의 배경이 있다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가령 고전소설 《박씨전》이나 한문단편 <劔女>¹⁴⁾의 여주인공 들에게서 예쁜이 인물형상의 先驅를 발견할 수 있다. '한문단편'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백세 노승의 미인담>을 포함해 역사적 소재를 소설화한 신채호의 단편들은 조선후기에 성행한 野譚文學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면이 없지 않다. 우선

13) 《전집(하)》에는 <百濟老僧의 美人談>으로 되어 있다. '百濟'는 '百歲'의 誤記다.

14) 이우성·임형택 譯編, 《이조한문단편집(中)》(일지사, 1978)에 실려 있다. 聰慧와 俠氣를 겸비한 예쁜이와 같은 부류의 여성은 <검녀> 외에도 조선 후기의 여러 문헌에서 발견된다.

이야기의 서술방식에서 야담의 氣韻이 다분히 느껴진다. 그러나 신채호의 단편은 <백세 노승의 미인담>이나 <일목대왕의 철퇴>에서 알 수 있듯, 계급차별을 부정하고 민족적 자주성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의 야담과는 다른 경지로 나아갔다. 그러므로 《유화전》에서 한 지적은 여기서도 타당하다. 즉 이들 작품은 낡은 형식 속에 새로운 정신을 담은 방식으로 근대문학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그 자체로는 아직 근대문학이라 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지만, 그 모색만큼은 자주적이고 진지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적당한 평가가 필요하다.

5

<꿈하늘>은 단재가 쓴 소설 중 대표작의 하나로 꼽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천로역정>의 영향을 받은바, 주인공 '한눈'이 길을 떠나 역경을 헤쳐가며 남나라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점이 확인된다. <꿈하늘>이 그 착상에서 <천로역정>의 영향을 받았음은 당연히 인정해야 할 사실이나, 그렇다고 이 작품에서 <천로역정>의 영향만을 거론한다면 그것은 일방적이고 따라서 부당하다. 작품의 형성에 전통적 요소도 적잖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천로역정>으로부터의 착상과 전통문학적 교양은 서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그리하여 외래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는 하나의 종합을 이루하고 있다. 외래적 요소는 전통적 요소를 통해, 전통적 요소는 외래적 요소를 통해 각기 자신을 지양하고 있는 것이다.

<꿈하늘>이 보여주는 전통적 요소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 건국신화, 시조, 글풀이, 神誌, 역사서술, 판소리적 어투,¹⁵⁾ 몽유록 등이 그러하다. 이 중 특히 몽유록과의 관련은 주목할 만하다. 꿈나라에 이르러 東明聖帝를 비롯하여 鄭汝立, 鄭平九 등 수십 명이나 되는 우리 역사상의 훌륭한 여러 先王·先

15) 판소리적 어투는 지목을 나열하고 있는 대목이나 남나라의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에서 두드러진다.

聖·先民을 만난다는 상황 설정이나 ‘도령군 놀음 곳’을 구경한다는 상황 설정은 우리나라 몽유록의 전통에 연유함이 틀림없다. 사실 <꿈하늘>은 그 서문에 서부터 ‘夢遊’를 강조해 놓고 있는 바다.

이처럼 이 작품은 외래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을 결합하면서 썩 다양한 양식의 글쓰기를 혼용해 놓고 있다. 신화, 서정시, 계몽적 논술, 역사, 알레고리, 몽유록, 秘訣, 이 모든 것이 작품에 혼용되어 있다. 그러나 역사인가 하면 역사가 아니요, 계몽적 논술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꿈하늘>은 이 모두를 混成하여 一大 壯觀을 연출하고 있으며, 특이한 예술적 형식을 갖는 하나의 소설을 釀成해 놓고 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꿈하늘>은 한편으로 외래문학에서 착상을 얻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고전문학의 전통을 아주 잘 활용하여 창작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단재는 자신의 민족주의 사상을 문예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 舊文學의 전통을 최대한 활용한 셈이다. 舊文學의 성과를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꿈하늘>은 앞에서 살핀 傳記小說이나 역사소설과는 달리 구문학에 견인당하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한 새로운 형식의 창조로 성큼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꿈하늘>은 이런 문학사적 의의를 갖지만, 오늘날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합도 없지 않다. 작품이 담고 있는 민족주의에 국수주의의 면모가 없지 않음이 그것이다. 민족주의가 국수주의 쪽으로 나아가는 한 제국주의를 부정하고 비판할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단재의 민족주의에 내포된 이런 면모는 《을지문덕》에서 이미 확인되는데, 1916년에 창작된 <꿈하늘>에 와서도 채 청산되지 못했다.

6

1928년 벽두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용과 용의 대격전>은 단재가 남긴 마지막 소설이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¹⁶⁾ 이 작품은 아나키즘의 소설적 구현이다. 이 작품은 계급적 압제 및 식민지 지배의 타도를 주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종교, 도덕 등 지배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일체의 권위와 관념을 부정하고 있다.

이처럼 <용과 용의 대격전>(이하 <용>으로 簡稱함)은 진보적인 근대사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이나 수법에 있어서는 고전문학의 성과를 활용하거나 변용한 측면이 적지 않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이 작품이 언뜻언뜻 판소리의 문체나 어조를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한 예를 들어본다.

모든 貧民들은 일제히 땅에 엎어져 운다. 울면서 미리님께 빈다. (...)그러나 그 비는 소리가 미리님의 귀에는 들리지도 안하고 다만 그 가련하고 모양없는 祭物만 미리님의 눈에 띄었다. 그래서 미리님이 꿀을 잔뜩 낸다.

“이 놈들 정성을 내지 않고 행복을 찾는 놈들 죽어보아라.”

하고 아가리꺾을 딱 벌린다.

아이구 어머니 그 아가리가 놀보의 박이던가. 그 속에서 똥똥쓴 皇帝며 쇠가죽 두른 大元帥며 이마가 반지러운 財產家며 대통이 뒤로 단 大地主며 냄새 피우는 巡査며 기타……모든 초라니들이 쏟아져 나온다. 나와서는 모든 빈민들을 잡아먹는다. 피를 짜먹고 살을 뜯어먹고 나중에는 뼈까지 바싹바싹 깨물어 먹는다.

밑줄 친 부분이 《홍부가》 중 놀부 박 타는 대목을 패러디한 것임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외에도 <용>에는 많은 풍자와 야유, 그리고 戲畫化가 발견되는데, 이에는 판소리 특유의 예술정신과 수법, 다시 말해 판소리의 美學을 활용하고 계승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꿈하늘>만 하더라도 ‘~하더라’는 식의 옛 문어투가 청산되지 않았었는데, <용>에서는 그것이 ‘~했다’로 바뀌고 있다. 또한 작품 서두의 “나리신다 나리신다 미리님이 나리신다”에서 보듯 敘事的 過去時제가 아니라 현재형의 어투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꿈하늘>이 1910년대 소설이라면 <용>은 1920년대 소설이라는 시대적 차이에 주로 기인하겠으나, <용>이 ‘~한다’는 식의 현재형 어투가 勝한 저 판소리 문체를 준거로 삼은 데서 기인하는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판소리는 서사시적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劇樣式的 성격도 갖기에 現在再現의 문체가 두드러진데,

16) 송재소, <신채호 문학의 민족과 민중> 참조.

<용>이 소설치고는 자못 극양식적 면모가 강한 것도 이 작품이 판소리 문체와 미학을 활용하고 계승한 것과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

<용>이 보여주는 전통문학적 요소는 敍事의 특성에서도 발견된다. 이 작품 역시 <꿈하늘>과 마찬가지로 時間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통상적 관념을 따르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용>의 敍事時間은 우리가 실제 삶에서 체험하는 시간을 재현하고 있지 않다. 아니, 전연 그에 방불하지도 않아 어찌 보면 종작없는 시간개념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까마득한 과거의 일과 몇 천 년 후대의 일이 동시에 펼쳐진다. 과거의 여러 시간대를 넘나드는 서사방식, 더 나아가 과거의 다른 시간대에 속한 인물들을 동시현존케 하는 이런 서사방식은 서구적 근대문학에서는 낯설지 모르지만 한국 고전문학의 전통에서는 아주 익숙한 것이다. <용>은 우리 舊文學의 이런 전통을 계승해 神이나 역사상 존재했던 聖賢들을 唾罵하고 있다.

<용>이 취하고 있는 형식적 구도는 《유화전》이나 <꿈하늘>과 마찬가지로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라는 二元論이다. <용>이 소설 구성의 방법론으로 삼고 있는 이와 같은 이원론은 당연히 고소설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그러나 《유화전》·<꿈하늘>과 <용>은, 외관상으로는 같은 이원론이지만 그 실질적 含義는 사뭇 다르다. 앞의 두 작품이 천상의 세계를 긍정하고 있다면, <용>은 천상의 세계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으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변화는 단재의 史觀과 思想이 영웅사관·민족주의에서 민중사관·아나키즘으로 변화한 것과 정확히 대응한다. 그리하여 <용>은 《울지문덕》이나 <꿈하늘>에서 부분적으로 옹호되던 국수주의 내지 배타적 민족주의 사상을 극복하고 東方 식 민중의 연대라는 인식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단재는 전통문학의 어떤 측면을 계승하거나 활용하거나 역이용하면서 자신이 지닌 ‘근대사상=아나키즘’을 소설로 구현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은 근대문학의 질곡이 아니라, 근대문학을 주체적이고 튼실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보인다.

7

지금까지 단재의 문학이 舊文學의 전통을 어떻게 활용·계승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단재는 구문학의 전통을 살리고 변용하는 방향에서 근대민족문학을 모색해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민지 시대의 대표적 비평가인 林和는 우리나라 新文學을 ‘移植文學’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 경우 ‘移植’이란 서구문학을 조선에 옮겨심는 것을 뜻한다. 이 이식이란 개념에는 전통에 대한 정당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당시의 지식인과 文士들이 일반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임화 역시 일본 유학을 거쳤으며, 일본을 통해 서구문학¹⁷⁾과 근대의 이미지를 받아들였다. 그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 굴절되고 왜곡된 像이었다. 그러므로 임화가 이식문학을 云謂했을 때 거기에는 舊文學이 자기대로 발전시켜온 민족적 형식에는 無知한 채 일방적으로 서구문학에 경도되었던 자신의 경험과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임화의 이식문학론이 식민지 조선의 창작상황을 대변하고 일반화한 것이라는 점이다. 李光洙에서 보듯 식민지 시대의 문사들은 白國의 문학전통을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멸하기까지 하였다. 말하자면 ‘자기’를 부정한 것이다. 이식문학론은 이러한 상황과 기분의 논리화에 다름아니다.

식민지 문단의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단재의 문학적 모색은 참으로 주체적이고 자랑스러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단재의 문학에서 우리는 어떠한 왜곡이나 굴절도 발견할 수 없으며, 고전적·민족적 형식이 스스로를 갱신하면서 근대문학으로 전환해간 대단히 소중한 경험을 확인하게 된다. 이 경험은 비단 20세기 초의 문학사에서만 의의를 갖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요구되는 脫植民의 글쓰기에 있어서는 물론이려니와, 한국문학이 다가오는 21세기에 ‘새로운’ 민족문학의 창조를 통해 인류와 세계문학에 이바지하는 데 있어서도 크나큰 참조와 격려가 되리라 본다.

17) 엄밀히 말한다면 ‘서구문학’이 아니라 ‘舶’서구문학이라 해야 할 터이다.